

[순모임 교재]

예수님의 자기선언 (1) 예수, 생명의 떡 Jesus, Bread of Life

요한복음 6:35

예수님은 “나는 생명의 떡이다”라고 스스로 소개하십니다. 오병이어로 배가 부른 사람들은 “더 많은 빵”을 기대했지만, 예수님은 “빵 그 자체”가 아니라 **예수님 자신**을 찾으라고 초대하십니다. “썩을 양식”은 우리 배는 채우지만,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. “영생의 양식”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**계속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삶**을 말합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도, 우리의 영적 허기를 정확히 보고 **주님께 다시 나아오는 것이 핵심**입니다.

1.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사람들이 찾은 것은 **더 많은 빵**이었지만, 표적의 목적은 배 부름이 아니라 “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(요 6:26-27). 오늘 우리도 **bios(비오스)**의 생명을 위한 성공·재정·안정을 향해 달리기 쉽습니다. 그러나 주님은 하늘이 주는 영혼의 생명인 **zoe(조에)**,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위해 **영생의 양식**을 구하라고 하십니다. 이번 주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한 한 가지는? (일, 돈, 인터넷, 영상 시청, 성과, 자녀, 건강 등) 그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결정은 무엇입니까?
2. 예수님은 “내게 오는 자는 주리지 않고,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”(요 6:35) 하셨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**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아오는 것**입니다. 이번 주 내가 실천하고 싶은 **Daily Bread 루틴 10분이 있다면** 무엇인가요? (말씀, 기도, 감사, 묵상, 독서 등)
3. 생명의 떡을 나누기 위해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? (가족/동료/이웃/성도) 이번 주 실천 3가지 중 하나 선택: **초대(주일/순모임)**, **기도(하루 1분 이름 불러 기도)**, **섬김(식사 대접/도움 제공)**. “언제, 어디서, 어떻게”를 **한 줄 계획**으로 적고 서로 위해 기도합니다.

빵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삶을 조금 내려놓고,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다시 나아갑시다.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한 사람에게 나누십시오.